

■ 편집자의 글 ■

2019년 12월 12일에 최초로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흔들면서 2020년 한해는 ‘코로나 19’로 기억될 것이다. 종교도 인종도 계급도 국적도 가리지 않는 바이러스가 만든 불안으로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아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코로나 19는 그렇게 일상 속에 숨어 있었던 제노포비아를 가시화 시켰고 ‘차별’을 노골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이에 『호모미그란스』 23호는 첫 번째 특집으로 “일상 속의 제노포비아”를 기획했다. 오영인은 미국 의학·이민사의 고전이 된 알란 크라우트(Alan M. Kraut)의 저서 『조용한 침입자들(Silent Travelers): 세균, 유전자, 그리고 “이민자들의 위협”』(이하 『조용한 침입자들』)의 주요 주장을 다시 검토한다. 질병과 공포, 그리고 공중보건과 이민자들과의 관계를 다층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이민사 연구서인 『조용한 침입자들』을 통해 필자는 의학과 과학이라는 명분에 가려진 인종주의와 의학적 편견으로 얼룩졌던 이민자들의 저항과 적응의 역사 경험을 들려준다. 고전 『조용한 침입자들』의 실질적 후속연구 중 하나로 신지혜는 그의 연구 「19세기 미국의 나병과 이민자: 미국 중서부의 노르웨이 이민자와 나병 경험」에서 노르웨이 이주자들이 감수해야 했던 나병 보균자라는 의학적 스티그마가 19세기 중후반에 걸쳐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정당화되었는지를 연구한다. 특히 같은 전염성 질병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특정 질병에 대한 의학적 낙인이 비백인 유색인에게로 전이되었는지, 그리고 그 질병에 대한 위협과 공포가 얼마나 더 증폭되었는지를 대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외주의에 갇힌 중동의 소수자 담론」에서 엄한진은 기존 중동지역에서의 소수자 논의들이 주로 종교나 여성문제에 집중되었던 한계를 넘어 국제 이주민과 성소수자의 사례에 주목한다. 중동에서 다양한 소수자

인권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파편화된 사회에 대한 경계심과 동질적 사회에 대한 갈망 또한 커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필자는 소수자 논의의 구도와 실제 현실 간의 괴리를 역사적 배경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호모미그란스 23호의 두 번째 특집 기획은 하와이 한인이민자들의 삶의 궤적을 찾아보는 “죽은 자의 트랜스내셔널 공간”이다. 김주용은 그의 연구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초기 한인 비석연구: 비석을 통해 본 이민자들의 생애사 복원」에서 초창기 하와이 한인 1세에 관한 연구가 주로 호놀룰루가 위치한 오아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한계를 지적하며 빅아일랜드의 공동묘지 중 한인의 166기 비석을 발굴하여 그 역사성을 검토한다. 필자는 고향, 종교, 직업, 나이, 가족, 조국애, 그리움 등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생이 담겨 있는 비석에 대한 연구야말로 하와이 이민 역사와 생활사 연구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주장한다. 김주용과 함께 빅아일랜드 한인의 묘비를 연구한 문경희는 그가 검토한 묘비 총 163기 중에 여성의 것 12기와 여성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특정 여성에 관한 문구가 적힌 비석 1기에 주목하여 초기 남성중심의 하와이 한인이주자 연구의 한계에 도전한다. 한인 여성의 비문과 여성의 정보를 담고 있는 남성의 비문 및 여타 기록을 드러냄으로써 필자는 이중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성이주자들의 삶과 죽음의 궤적을 파악하고자 시도한다.

그 외에도 음동건은 수에즈 전쟁 이전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힘겹게 유지되던 유대인과 무슬림의 “모호한 이웃관계”가 전쟁 이후 어떻게 변화하는지 당시 알제리 유대인 언론 『앵포마시옹 쥐브(Information juive)』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들여다본다. 「프랑스령 알제리의 ‘새로운 반유대주의’와 유대인-무슬림 관계」에서 필자는 알제리 사회에서 형성되고 있었던 “새로운 반유대주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유대인과 무슬림 사이 서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을 추적한다.

「알제리 전쟁 이후 아르키(Harki)의 프랑스 이주: 프랑스의 모국송환자(rapatrié) 정책과 아르키」에서 문종현은 알제리 전쟁에서 프랑스 편에서 싸운 무슬림 원주민 아르키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모국송환정책에 대해 검토한다. 그는 독립전쟁이자, 내전이기도 했던 알제리전쟁의 이중적 성격으로 양산된 아르키 부대의 역사성을 설명하면서 프랑스의 모국송환

자 정책이 유럽계 프랑스인과 아르키에 대해 차별적으로 실행되었고, 이러한 차별이 식민지체제의 연속성 위에 있음을 주장한다.